

강릉 - 도시 · 건축 읽기

A Look of Urban Aspect & Modern Architecture in Kangnung

김효남 / 관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Kim Hyo-Nam

강릉의 도시적 특성

도시는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모습이 서서히 다듬어 지며, 그 속에는 많은 흔적을 내포하게 된다. 그 흔적은 고향이라는 의미를 갖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되며, 그 지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연상을 하게 하는 힘을 가진다.

강릉은 예로부터 영동지방의 행정, 교육, 문화의 중심지로 발달하여 왔으며, 풍광이 수려한 관광지로 유명하다. 경제개발의 기치아래 짧은 시간 내에 건설된 계획된 도시와 달리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서서히 발전하였으며,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오랜 세월을 뿌리를 내리고 생활해오고 있는 보수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강릉이란 지명에서 연상되는 것은 객사문, 선교장, 향교 등의 고건축과 경포대 해수욕장과 정동진, 소금강 등의 관광지를 떠올릴 수 있는 도시이다.

강릉은 관광지를 위한 도시적 기능과 영동지역의 중심 역할과 대학이 4개나 있는 교육도시이기도 하다.

강릉은 도시 전체를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다. 서쪽은 백두대간이 남북으로 연속되며, 동쪽에는 바닷가 있어 도시의 경계가 자연 조건에 의해 생기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의 발전 축이 남북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도시를 남북으로 분절시키는 남대천에 의해 지역이 구분된다.

도시는 지형적인 특징과 경제적 배경(관광 배후도시)에 의해 모습이 결정된다. 또한 타 지역과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의 형성과 지역 특유의 강한 바람 방향은 건축물 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도로가 산맥과 직교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물은 동남향으로 배치).

서쪽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인 대관령을 향한 동서의 축과 남북을 연결하는 7번 국도에 의해서 십자형의 단순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도로의 개설은 5거리와 6거리 같은 복잡한 도로가 생겨나게 되어 교통체계가 혼란스럽다.

강릉의 지역적 구분

대관령이 시작되는 성산은 강원도의 내륙과 연결되는 곳으로 많은 음식점들이 생겨나면서 과거의 모습을 바꾸어 버렸다. 각자의 개성을 강하게 표현하는 새로운 건축물들은 기존의 건축물과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사람이 모여들고 이를 상대로 하는 상업 건축물이 건설되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흔적이 빠른 속도로 지워지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금산의 경우는 한옥주택 모양으로 건축을 권장한 지역으로 예전의 집단 거주지의 모습을 보유하고 있으나 무리한 한옥형태만의 모방은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도시내의 건축은 80년대 말에 기점으로 새로운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형태의 다양화와 재료의 선택에서 획일성을 탈피하는 양상을 보이며 도시 경관에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다. 특히 단순한 육면체의 형태에서 탈피하여, 지붕 씌우기, 창문 형상의 다양화, 형태 구성을 위한 의도적 첨가 등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의 가로로는 새로운 건축물들과 기존의 건축물들이 정리되지 않은 도시경관을 보여주고 있으나, 새로운 건축물들로 치환될 경우 새로운 즐거움을 주는 가로공간이 완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가로의 성격상 대중과 접촉이 많은 상업 시설이 주를 이룰 것이므로 단일 건축물을 부각시키기 위한 Propagandisiv이나 Sensualism의 확산이 우려된다.



대관령에서 바라본 강릉 전경



강릉의 변화가 명동



강릉 종합운동장 주변



포남동 신 주거지



포남동 택지개발지

정동진은 새로운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과거의 흔적이 빠른 속도로 지워지고 있으며, 건축물들은 상업적인 특성만을 강조하며 무질서하게 새로 지어지고 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소금강지역은 좋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제 각각의 모습과 치장을 한 건물들의 도열은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수도권 외곽지역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경관의 재판이 되는 것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경포대는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과 숙박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며, 숙박지구는 90년대 후반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국적불명의 형태와 도로망의 불규칙성은 부지의 형상에도 영향을 주며 전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받게 된다. 경포에서 사천방향으로 해변을 따라 새로 개설된 도로를 따라 새로운 상가들이 건설되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개발이 결여되어 있다.

관광지역들은 천연의 경관을 상업적인 발상에 의한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주거 건축의 변천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던 도시는 80년대 말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도시 스카이라인을 일시에 바꾸어 놓았다. 90년대의 대단위 세대 고층아파트 건설은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에도 영향을 주어 단일 중심 지역

에서 부도심지역을 형성하며, 도시의 기능을 분산시키는 균형적인 발전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으나, 도시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무질서한 고층 아파트의 건설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새로운 택지조성은 도시구조 뿐만 아니라 주거문화에도 영향을 주어 단독거주 주택 없이 다세대로 건설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전의 단조로운 형태를 가진 다세대 주택과는 달리 형태의 다양화와 외장 재료의 다양화 등을 통한 가로 변화의 준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 획일적인 건물의 규모와 주차장의 부족 및 형식적 녹지공간의 구성 등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위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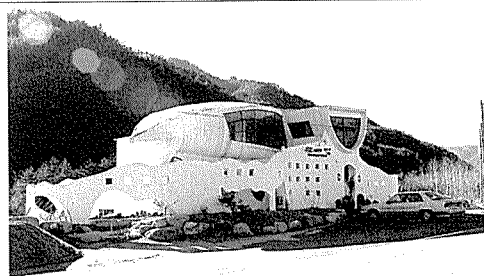
시대별 건축물 기행

건축을 읽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는 작가의 의도는 배제되는 것으로 독자의 눈으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강릉지점은 70년대 세워진 건축물로 강릉시내가 시작되는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형태의 완성도를 위한 커다란 아치는 부출입구로 주출입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다. 비례감이나 통일성을 주는 부분적인 디테일의 처리가 매우 우수하다.



한국은행 강릉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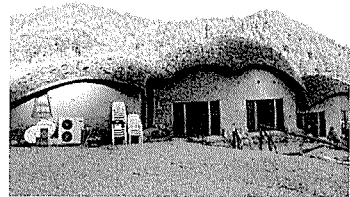
가로변의 상업건물



강릉역 뒤의 도시모습



도시외곽의 전원주택



도시외곽의 상업건물

아래 사진의 병원은 80년대 건축된 건축물로 비대칭적인 형태의 구성을 통한 조형성이 돋보인다. 점진적 변화감을 주는 계단식 매스와 중심축을 갖는 몸체와의 결합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릉의 관문인 대관령을 내려오면 보이는 박물관은 90년대에 건축됐다. 고인돌의 형상을 보여주는 조금은 무거운 느낌을 주며 도로보다 낮은 부지에 묻혀있는 모습으로 크지 않은 매스로 처리되어 있어 아흔 아홉 구비를 어지럽게 내려온 방문객에게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부지의 높이 차를 이용한 배치와 입구의 계단은 지역 특유의 산악의 계곡을 연상하게 한다.

소금강에서 진고개를 향하는 6번 국도 변에는 새로운 시도의 건축들이 행해지고 있다.

눈에 띄는 초기집 형상의 3부분으로 구성된 지붕과 흙으로 벽을 구성하며, 경사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면과 후면이 상이한 입면을 가지고 있다. 실내 바닥의 높이가 다른 3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각기 다른 천장 높이를 가진 변화있는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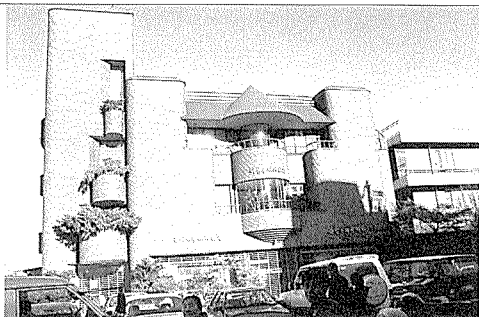
어두운 산을 배경으로 땅에 엮드려 있는 물고기를 연상시키는 이 건축물은 흰색으로 마감한 것이 산이 배경이 되어 강렬한 느낌을 준다. 신선한 흥미를 유발하며, 형태구성을 위한 빈 공간의 연못을 만든 것이 매우 재미있는 시도이다. 경사진 부지를 그대로 활용한 것은 좋으나, 전면에 비해 후

면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이 아쉽다.

80년대 말부터 강릉건축에 변화가 있었다. 형태의 변화, 외장재료의 변화 등을 보였다. 이는 경제력의 축적과 수요자들의 요구의 변화가 이루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의 어느 한 부분에 오랜 세월을 걸쳐 친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간직하는 이미지는 기억과 흔적으로 채워져 있다.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것으로 오래오래 변하지 않기를 원한다. 정서의 안정이라는 중요한 감정으로 많은 사람이 간직한 고향이라 느낄 것이다.

소도시의 경우는 이러한 흔적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규모 병원



종합운동장 주변의 체육시설